■ 대금 동호회 '대나드리'

"왕이 곧 이 대나무를 베어서 피리를 만들어 불었더니, 나라의 모든 걱정과 근심이 해결됐다고 한다. 적이 물러가고, 병이 낫고, 비가 올 때는 개며, 바람과 물결도 잠잠해졌다.
그래서 이 피리를 '만만파파식적(萬萬波波息笛)'이라 이름지었다."
대금은 신라 제31대 신문왕 때 국보로 삼았다는 '만파식적' 설화에 나오는 악기다.

서병현 씨

김만옥 씨

김민성 씨

이존호 씨

청아한 소리 세상시름 쫓는다

▲ 대금 동호회 '대나드리 회원들'. 20일 광주시 남구 사직공원 내 영상센터에서 그들만의 첫 연주회를 앞두고 공연에 올릴 음악을 연주하고 있다.

우리 가락·우리 소리에 얼쑤~
주부도 직장인도 "우린 국악인"
오늘 영상센터서 창단 연주회

우리 가락이 구성지게 울려퍼진다. 조용한 주택가 주변을 감싸듯 퍼지는, 대금 소리다.

비오는 날 전통 찻집이나 아파트 베란다에서 차 한 잔 마시며 듣기 좋은 소리다.

귀에 익숙한, 어깨가 절로 들썩여지는, 그런 소리는 아니지만 가슴에 와 닿는 느낌이 좋다. 눈을 감고 소리에 집중하다 보면 조금씩 깊이가 느껴지고, 어느새 대금 소리만 머리 속에 가득해진다.

광주시 서구 농성동 전남경찰청 인근 주택가에는 우리 가락이 끊이질 않는다.

대금동호회 '대나드리' 회원들이 내는 대금 소리다. 모두 우리 소리, 우리 가락이 좋다는 회원들이다. 국악을 오래 들었던 사람들은 아니지만 생활 속에서 들어본 뒤 대금을 배울 마땅한 곳을 찾아 '금용웅 대금연구소'까지 왔다가 만난 것.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라 모임도 쉽게 만들어졌다.

10대 고등학생부터 대학원생, 주부, 회사원, 의사, 자영업자, 증권사 지점장 등으로 나이도, 직업도 다양하지만 '소리에 반해' 찾아온 사람들로 우리 음악을 껴안는 숨결만은 뜨겁다.

회원 김현덕씨는 "무심코 들었던 대금 소리가 너무 좋아 취미 삼아 시작한 일인데 어디라도 갈 때면 반드시 대금을 챙기고 갈 정도"라며 "주말에는 아예 연구소에 나와 하루종일 대금을 불 때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오는 20일 '대나드리 창단 연주회'를 앞둔 탓에 회원들은 연습에 한창이다. 3년 전인 2006년부터 대금을 배우기 시작한 회원들이지만 무대에 오르는 것은 처음이다. 서로 가르치고 배워가며 차곡차곡 쌓은 실력으로 여는 첫번째 연주회라는 점에서 연구소는 회원들의 대금 소리밖에 들리지 않을 정도다.

'목포의 눈물, '소양강 처녀','노들강변', '진도아리랑' 등으로 곡이 계속 넘어가지만, 대금을 잡은 회원들의 입은 악기에서 떨어질 줄 모른다. '대금산조'를 연주할 때면 회원들 얼굴은 진지함이 가득하다.

실력도 수준급이다. 처음엔 소리내기도 힘들어하던 회원들이지만 어느새 고음·저음을 자유롭게 구사한다.

지하철역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공연을 펼치는가 하면 창단 연주회가 끝난 뒤에는 독거 노인들을 찾아다니며 무료 공연을 펼칠 계획도 구상중이다.

열정은 전문 연주자 못지 않다.

대금은 소리내는데만 몇 개월 이상 걸리는 고난도 악기다. 처음 한 달은 암만 불어도 소리도 못 내는 사람들이 많다. 소리도 안 나는데 자꾸 불다 보면 머리만 어지럽다. 당연히 짜증이 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배워보겠다며 찾아왔다가 손을 들고 슬그머니 나가버린 경우도 많다.

입을 대고 부는 악기인데다, 악기마다 조금씩 소리가 다르고 음정 잡기도 까다롭다. 모양이나 강도·굵기 등이 천차만별인 대나무를 자연상태 특성에 맞춰 만들어지는 탓이다.

대부분의 회원들이 자신만의 대금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

이뿐만 아니다. 연주할 때 자세도 갖춰야 하고 연습할 때 한복을 입어야 하는 번거로움도 참아내야 한다. 이러다보니 지금 남아있는 회원들은 '골수 진성회원'인 셈이다.

회원들이 모이는 시간도 매주 토·일요일 오후 2시부터다. 남성 회원들의 경우 가족들과 나들이가는 대신 혼자 대금을 들고 나오는 '용기'도 내야한다.

하지만 매주 예정된 연습 시간보다 일찍 나와 밤 늦도록 연습하다 돌아가는 회원들이 많다.

회장 박동순(49·개인 사업)씨는 "처음에는 주말에 혼자 놀러 나간다고 가족들에게 원망도 많이 들었지만 이제는 대금 소리를 무척 좋아해 틈만 나면 연주를 해달라고 조르기도 한다"고 말했다.

아랫입술 아래가 부어있거나 상처가 생긴 회원들도 많다. 취구에 입을 대고 연주하는 과정에서 생긴 상처로, 악기를 다루는 신체 일부에 박힌 '명함'이나 다름없다.

회원 김만옥(48·장흥 장평어린이집 원장)씨는 "대금의 매력요? 불고 있으면 뒤죽박죽해진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 같다"고 "연습하다 보면 2~3시간이 후딱 지나가 버릴 정도로 재미가 붙었다"며 대금 예찬론을 폈다. 김씨는 대금 소리에 반해 남부대학에 편입, 대금을 전공한 뒤 대학원까지 다니고 있다.

주부 회원인 박금미씨는 "처음에는 소리도 못 냈는데 조금 자신감이 생기면, 또다른 고비가 생긴다"면서 "대금이 인생과 비슷하다"고 했다.

"한꺼번에 와 닿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깊이를 느껴가는 음악". 대나드리 회원들의 공통된 생각이다.

금용웅 대금연구소 금용웅씨는 "대부분이 우리 가락, 우리 소리가 좋아서 찾아온 사람들인데다, 연주하면서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 같다는 회원들이 많다"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사진=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2009년 부터 2011년까지
소방직 채용 대폭확대 예정
국회의원 사랑정책 통합 소방체력측정기 도입
소방체력측정기 무료체험
가정형태학인 수강료 + 교재 6권 무료
6개월 합격 환불에 9만원
이론강의 + 문제풀이 + 동영상 무료제공 + 체력측정
한빛소방직전문학원
광주 북구청앞 ☎252-0252

아무도 믿지 말고 한빛고시학원만 따르라!! 7·9급 공무원 합격의 해법은 한빛에 있다!! www.hanbitgosi.co.kr
7·9급 공무원 합격설명회
일자 6월 27일 시간 14시 30분
당일 수강접수자 20%(8만원)+교재 30% 할인혜택
(참석자 전원 ▶ 최근 5년간 기출문제 +고급노트 +행운권추첨 (종합반 교재 20만원 상당 무료추첨 10명, 교재 2권추첨 [영어, 한국사] 10명)
2008.8.27시행 한빛고시학원 출신 문광선판위 (광주/ 전남/ 북) 경쟁률 1084.7:1
수석합격
학원선택은 실적입니다.
▶ 2008년 국가직 389명 합격
▶ 2008년 서울시 지방직 209명 합격
▶ 2008년 전남지방직 89명 합격
▶ 2008년 광주지방직 113명 합격
▶ 2008년 경기지방직 127명 합격
"성공의 신화를 쓰는 제작 아끼지 않겠다"
한빛최고의 합격시스템
전국 최강의 강사진, 최고의 시설에서 당신은 수강만을 권리가 있습니다.
= 또하나의 7·9급 합격대작 =
문제풀이
종합반/ 단과반 개강 7월 1일
7월 합격개설강좌 행정직/ 세무직/ 검찰직/ 법원직/ 소방직/ 경찰직/ 교육행정직/ 사회복지직/ 농업직/ 기술직 = 전직종 첫진도!
- 고시학원의 대표브랜드 -
한빛 고시학원
(광주 북구청앞) ☎234-0234

광주일보
작은만남 큰 기쁨
친절한 써비스와 고객의 입장에서 모시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는 — 본사 판매국(062)220-0551

신세계익스프레스 | 북구 우산동 무등도서관 맞은편 포장이사,일반이사 전문업체 | 대표 최 성 진 | ☎(062)261-2479
녹동앞바다 | 서구 금호동 풍암4거리에서 부영105동사이 자연산 바다장어정식,숯불구이전문 2인분 주문시 1인분서비스(5/28~6/28) | ☎(062)652-0103
수연철학원 | 남구 방림동 모아@110동앞 신비의 영점 사주,궁합, 취업운 상담전문 | ☎(062)262-2675
광주화랑 | 동구 궁동 52-2 동,서양화매매 무료감정 표구고급 | 대표 박 종 환 | ☎(017)632-4784
독도수산 | 남구 백운동 백운우체국건너 지하 최상의 산선합,최상의 서비스 산지직송과 저렴한 가격 | 대표 박 광 춘 | ☎(062)674-2111
다지오리탕 | 북구 신안동4거리 빛고을랜드 뒷편 오리탕전문점(예약하시면 맛있게 드실수 있습니다) | 대표 노 윤 선 | ☎(062)528-4209
월출도사 | 북구 중흥동 동부교육청후문 일반도로 아름다운 우리인생과 운명상담 인생상담,병점,사주,궁합,부적 | ☎(011)602-5902
우정흔수방 | 동구 계림동 산장입구4거리 혼수이불,누비,호텔이불,각종패드전문 | 대표 정 남 석 | ☎(062)524-5467
다인산업 | 동구 소태동 동구문화센터옆 자동반자동문,A/S,창호자동문,철구조물, 건축리모델링,금속창호 전문인력업체 | ☎(062)432-3796
증심사중앙식당 | 동구 충장로2가 삼삼전당포앞 철판닭볶음 전문점 | 대표 최 종 현 | ☎(062)228-1834
미담 | 동구 금남로3가 SK브로드밴드 뒷편 생고기,갈비살,삼겹살,가브리살,함흥냉면 단체예약환영 | ☎(062)228-7982
경향종합건축사무소 | 북구 신안동 주택회관 3층 | 대표 고 명 | ☎(062)528-4880
일번지횟집 | 광양시 광영동 광영초등학교와 동사무소사이 도다리쑥꼬시,농어,깔따구,광어,전어,우럭찜, 아나고회동구이,문절구 단체예약손님환영 | ☎(061)792-3015
순천관 | 순천시 장천동 (구)성가롤로후문 산삼,해양근 웰빙,요리전문점 삼계탕,갈비탕,생삼겹, 생목살,생오리,비빔밥,장어탕,냉면 단체예약손님환영 | ☎(061)744-9295
본추어탕 | 서구 치평동 시의회옆 추어탕전문점(추어떡갈비,추어튀김,추어전골) | 대표 김 연 옥 | ☎(062)372-7579
뼈대 | 북구 양산동 코카콜라4거리 감자탕,해장국전문점 24시간영업 | 대표 최 홍 채 | ☎(062)574-0303
양가네포차 | 동구 불로동 히딩크호텔옆 장어구이,닭발,곱장어 연탄구이전문 | ☎(062)225-2234
아이엠키즈 | 남구 월산동 동강오피스텔803호 유아,아동복 전문 | 대표 김 복 자 | ☎(070)7759-3929
무진주디자인기획 | 남구 방림동 542-1 인쇄물 디자인제작 간판제작,선거기획,정치광고 | 대표 한 정 훈 | ☎(062)675-0227
스포츠온 | 북구 임동 전남방직앞 학교체육용품,뉴스포츠용품, 체육시설물,야외운동구,단체복 | ☎(062)376-2884